

##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손 강 숙

중앙승가대학교

정 소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 5곳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5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허용도,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고,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질적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대생 중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행동에 관한 질적조사 결과, 총 3개의 하위영역과 12개의 범주(내적이유 4개, 외적이유 5개, 필요한 도움행동 3개)가 도출되었다.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성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여대생,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허용도, 성적 자기주장

\* 본 연구는 「봉은학술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 교신저자 : 정소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4092, E-mail : angelica66@hanmail.net

## 서론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학 선후배간 혹은 동료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11개 대학 8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 폭력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의 전화, 2009). 또한, 20-30대 미혼남녀 858명을 대상으로 한 하예지와 서미경(2014)의 데이트 폭력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피해경험이 전체의 49.5%, 심리적 피해경험이 전체의 30.7%로 나타났으며,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2015)의 데이트 폭력피해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19세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데이트 중 남자 친구로부터 신체적·심리적 폭력 등과 같은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은 대학생활 적응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추후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데이트 폭력이란 이성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 중에 있는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력 행동을 포함한다(이영숙, 1998; Straus, 2004). Lewin(1985)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상대의 강압이나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부터 심리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비폭력적인 강압이 폭력적인 강압보다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았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데이트 관계의 두 사람이 동의를 관계가 아니라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행해진 압력과 강제라고 보기도 하였다(Kelly, 1987). 실제로, 대학생들은 상대방의 강압에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응낙하거나, 생활에 대한 감시나 간섭을 받고, 심한 욕설과 언어폭력을 당하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 강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연, 광영일, 2011; Reneau & Muehlenhard, 2007). 이러한 데이트 폭력피해경험은 불안과 우울, 심리적 외상, 만성신체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서경현, 2006 ; Nicolaidis & Touhouliotis, 2006). 또한 데이트 폭력피해경험은 이성에 대한 불신, 피해자라는 느낌,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손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윤경, 2002; Stets, 1992).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고통 혹은 상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한 모든 신체적·심리적·언어적 폭력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게 되어 데이트 폭력을 허용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Choice와 Lamke(1997)의 연구결과, 데이트 관계의 커플이 결혼한 커플보다 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폭력의 강도나 교제의 지속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과 연인과의 관계와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데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Arias & Pape, 1999; Rusbult & Martz, 1995). 실제로, 장윤경의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연인과 헤어지게 될까봐’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욕구와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관계를 지속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실제 성적 자기주장이 어느 정도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의존 욕구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관련이 될 수 있다(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이은숙, 강희순, 2014; Ackard & Neumark-Sztainer, 2002).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개인적인 속성들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연결시킨 것으로, 남성은 지배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여성은 친절하고 애정적이고 협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Williams & Best, 1990).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성폭력 허용도가 높고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그 연관성이 더 높다(Greendlinger & Byrne, 1987). Muehlenhard와 McCoy(1991)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는 성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남성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도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를 내면화한 여성의 경우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거절

하기와 자기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Impett & Peplau, 2003). 심정신 등(2012)은 7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허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대학생이 낮은 대학생보다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실시된 이은숙 등(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으면 데이트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행동들이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데이트 폭력행동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 사건 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김복태(200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가해자에게는 책임부여를 덜 하였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실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 즉 성적 자기주장을 어떻게 하는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데이트 관계에 대한 만족, 데이트 파트너간의 힘의 작용 그리고 데이트를 한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성 경험, 예상되는 파트너의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성적 자기주장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Morokoff, Quina, Harlow, Whitmire, Grimley, Gibson, &

Burkholder, 1997). 데이트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주요한 변인 중의 하나인 성적 자기주장성은 원하지 않는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으로(Vaughn, Rupal, & Constance, 2002), 남성들은 성적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여성들은 이와 반대로 웃거나 터치하거나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Perper & Weis, 1987). 이러한 전통적인 성에 대한 태도는 수동적인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적 자기주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Kiefer & Sanchez, 2007). 실제로,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2013)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박선미와 송원영(2012)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성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현상은 가정교육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영철, 노성희, 박재용, 오남석, 윤희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2015), 만 5세경부터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20대 대학생과 거의 동일한 고정관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아동일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더 빨리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lumstein과 Schwartz(1983)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표현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여성들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는 여성이 성적 관심에 대해 '싫다'라는 의사표현

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좋다'로 인식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대생들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수동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기보호를 위한 성적 능동성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이은숙, 강희순, 2014; Kiefer & Sanchez, 2007),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서는 연인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2016).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폭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데이트 폭력 허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동기, 2009; 이은진, 2015). 자신의 성적 결정권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 피해, 원치 않는 성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Pulerwitz, Gortmaker, & DeGon, 2000; Wingood & DiClemente, 2000), 여대생들이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인 관심에 대한 거절하거나 주장하기 등 성적 자기주장성이 데이트 폭력의 지속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역할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연구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 허용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여성의 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

여 데이트폭력을 지속하게 하는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데이트폭력을 지속하게 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성적 자기주장성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경험은 여학생이 피해자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남학생도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이은숙, 강희순, 2014). 이지연과 이은설(2005)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의 데이트 가해·피해를 중심으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설명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데이트 성폭력에서 남성들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폭력을 사용하므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의 공격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방어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O'Keefe, 1997),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태도나 인식은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변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현재 시점에서 재확인하는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더욱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성적 자기주장성에 대한 질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이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데이트폭력허용도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교육 및 상담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2016년 4월 4일-25일까지 총 21일(3주) 동안 서울·경기 지역 4년제 대학 5곳에 재학 중이며 과거 1회 이상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질적 조사에 동의하는 60명을 대상으로는 질적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설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과거 1회 이상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학생만이 연구대상임을 명시하고, 설문 결과의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8세였으며, 학년은 1학년 92명(16.79%), 2학년 139명(25.36%), 3학년 161명(29.38%), 4학년 156명(28.4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83명(69.89%)이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일(1991)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적, 사회적, 직업 및 외형적, 사회

심리 적, 지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주리,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6 ~ .84의 범위를 보였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성역할고정관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0,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79,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84, 직업 및 외형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79, 사회심리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82, 지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90으로 나타났다.

#### 데이트 폭력허용도

이성교제간 폭력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1995)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를 장희숙, 조현각(2001), 서경현, 이영자(2001)의 연구에서 번안해서 사용한 것을 남현미(2003)가 수정한 이성교제간 폭력허용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자들이 8가지 상황아래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선미, 송원영(2012)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성역할고정관념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Morokoff 등(1997)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작업이 된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를

최명현(2004)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구성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 거절 요인,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성적 자기주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선미, 송원영(201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고, 성 접촉에 대한 거절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3이었고,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은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성적 자기주장의 신뢰도 계수는 .83, 성 접촉에 대한 거절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7,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은 .82로 나타났다.

####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여대생 중 60명을 대상으로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내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의 연구진 2명과 CQR 및 CQR-M을 사용한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학박사 2인이 함께 분석하여 자료를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기술적 통계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AMOS 18.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거쳐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직접적으로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모두 존재하는 부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단일 척도일 경우 각각의 문항꾸러미들이 비슷한 요인 적재량을 가질 때 꾸러미에 의한 잠재변인의 구인 효과가 최대화되기 때문에(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트 폭력허용도가 단일 요인, 성적 자기주장이 2요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5요인으로 하위요인의 수가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변인들을 2-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의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각 측정변인이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혼합하여 합산하

는 개념영역 대표성 방법(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을 통해 문항을 합산하여 각 잠재변인 별로 2-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값( $\chi^2$ ) 뿐만 아니라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 결 과

### 질적조사 결과

####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외적 이유

여학생이 생각하는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외적 이유는 총 106개의 응답이 도출되었다(중복).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35.85%, 개인의 잘못된 인식이 30.19%, 부모의 양육환경이 28.30%, 과거의 폭력경험이 5.66%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외적 이유

하위영역 및 범주	비율(빈도)
	100%(106)
1) 부모의 양육환경	28.30%(30)
2) 사회의 잘못된 인식	35.85%(38)
3) 개인의 잘못된 인식	30.19%(32)
4) 과거의 폭력경험	5.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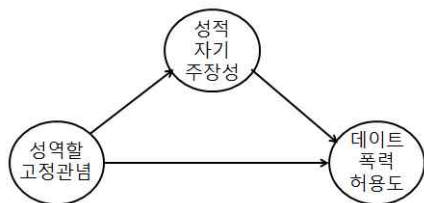


그림 1. 부분매개 모형(연구모형)



그림 2. 완전매개 모형(대안모형)

표 2.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내적 이유

하위영역 및 범주	비율(빈도)
	100%(142)
1) 공포, 두려움, 불안	16.90%(24)
2) 의존감	11.27%(16)
3) 버림받고 싶지 않은 욕구	9.86%(14)
4) 낮은 자존감	46.48%(66)
5) 지나친 이타심 (착한 아이 콤플렉스)	15.49%(22)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내적 이유**

여학생이 생각하는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내적 이유는 총 142개의 응답이 도출되었다(중복). 낮은 자존감이 46.48%, 공포, 두려움, 불안이 16.90%, 지나친 이타심(착한 아이 콤플렉스)이 15.49%, 의존감이 11.27%, 버림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9.86%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

여학생이 생각하는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은 총 84개의 응답이 도출되었다(중복). 피해자의 인지적 변화를 위한 개입 45.24%, 폭력피해 시 실제 대처행동 교육이 30.95%, 폭력피해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23.81%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내적 이유

하위영역 및 범주	비율(빈도)
	100%(84)
1) 폭력피해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 개입	23.81%(20)
2) 폭력피해 시 실제 대처행동 교육	30.95%(26)
3) 피해자의 인지적 변화를 위한 개입	45.24%(38)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inch와 West(1997)가 제안한

표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1. 성역할 고정관념	1		
2. 성적 자기주장	-.466**	1	
3. 데이트 폭력허용도	.438**	-.379**	1
M	3.59	3.02	3.40
SD	0.446	0.738	0.845
왜도	-1.876	-0.191	0.567
첨도	1.829	-0.496	-0.132

\*\* $p < .01$



일변량 왜도 절대값 2, 일변량 첨도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각 하위 요인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잠재요인이 모두 들어간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했다. 전체변인들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chi^2=133.789$ ,  $df=24$ ,  $TLI=.931$ ,  $CFI=.945$ ,  $RMSEA=.062$ ,  $SRMR=.0670$ ).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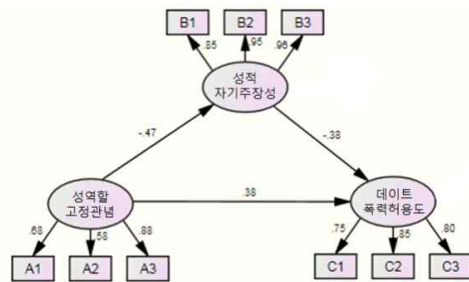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매개하여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완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2개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nested relation)에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검증(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Bentler & Bonett, 1980)을 통해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모형검증은 일반표본과 표적표본으로 분리하여 수행하지 않고 두 표본군을 합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모형(부분 이중매개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hi^2=133.789$ ,  $df=24$ ,  $TLI=.931$ ,  $CFI=.945$ ,  $RMSEA=.062$ ,  $SRMR=.0670$ 로 나타났다. 대안모형(완전매개 모형)은  $\chi^2=150.545$ ,  $df=25$ ,  $TLI=.918$ ,  $CFI=.878$ ,  $RMSEA=.096$ ,  $SRMR=.0813$ 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델에

서 상대적인 적합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Gefen, Karahanna와 Straub(2003)의 제안에 따라 대안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이 대안모형에 비해 자유도 1이 감소한 것에 비해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 $180.545-133.789=16.756$ ,  $\chi^2$ 의 임계역은 5% 유의수준에서 7.81), 연구모형(부분매개 모형)이 대안모형(완전매개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부분매개 모형의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chi^2$	$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 (부분매개)	133.789	24	.931	.945	.062 (.060 ~.080)	.0670
대안모형 (완전매개)	150.545	25	.918	.878	.096 (.090 ~.101)	.0813



$\chi^2(24, N=548)=133.789(p=.000)$ ,  
CFI=.931, TLI=.945, RMSEA=.062(.060~.080)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표 6. 각 경로에 대한 경로계수

경로	B	$\beta$	95% CI Bootstrap percentile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	-.48	-.47	.09, .21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허용도	.40	.38	..04, .07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	-.40	-.38	.05, .09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에서 하한값(lower)과 상한값(upper) 사이에 0 이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한다(Bollen & Stine, 1992).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경로들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직접경로뿐만 아니라 간접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적 조사와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고 구조적 과정의 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

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 행동에 관한 질적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적 이유로는 낮은 자존감, 공포, 두려움, 불안, 지나친 이타심(착한 아이 콤플렉스), 의존감, 버림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2003)의 연구에서 여고생을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자기효능감 증진, 자존감 증진 등 내적 요인들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외적이유로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 개인의 잘못된 인식, 부모의 양육환경, 과거의 폭력경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경, 엄애선(2010)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성역할태도와 데이트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며, 권희경과 박경(2003)의 성폭력 후유증 장기후유증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제1요인이 '낮은 성적 자존감'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러한 변인은 개인의 성적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성적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으로는 피해자의 인지적 변화를 위한 개입, 폭력피해 시 실제 대처 행동 교육, 폭력피해 후유증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미향과 이용복(2005)의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연구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지평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심리적 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질적 자료의 내용을 통해서 양적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성적 자기주장에 관한 심도 있는 내용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 성적 자

기주장 간에 각각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과 엄애선(2010)의 연구에서 성역할관념과 성 차별적 태도가 데이트 성희롱, 데이트 성추행, 데이트 강간 등의 데이트 피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숙희, 강희순, 김윤희(2010)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이은숙과 강희순(2014)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폭력 인식도 및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지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성폭력 경험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맥락의 결과이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2013)의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 성태도와 대학생들의 자기주장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은숙과 강희순(2014)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과 달리 여대생 집단에서만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성폭력 경험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허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Impett와 Peplau(2003)의 연구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규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주장을 덜 하게 되고 성에 있어 자기 의사를 덜 전달하게 되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Vaughn 등(2002)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성적 자기주장성을 주요 변인으로 다룬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통한 중재적인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착한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기대를 받으며 성장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자기표현은 잘 하지 못하도록 사회화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기주장이 서툰 특성을 보인다(Jang, Cha, & Lee, 1992). 현대 사회의 대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학문적,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화를 경험하고 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러한 경험들은 대학생들의 성 인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양육환경, 사회의 인식, 더 나아가 직무 환경에서는 변화된 성 인식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험하는 것과 행해야 하는 것이 ‘다른’ 이러한 괴리 상황에서 성에 대해서 자녀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해온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또한 성인이

된 대학생들에게 부모가 직접적으로 성 교육을 하거나,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더 더욱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과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여대생들이 자신의 성을 지키면서 자기표현, 즉, 성적 자기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 교육과 상담적인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에 초점을 두고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추기 위한 매개변인을 밝혀내려고 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현재 시점에서 재확인하는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여대생 성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거쳐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매개효과의 검증과 함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질적 정보를 수집·도출했다는 점에서 경험적 의의가 있다. 셋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출 수 있는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 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 5곳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여대생 집단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대학 우리나라 여대생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집단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평균치로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수준을 판단하였다. 이는 여대생 집단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여대생 집단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이라는 개인 내적 변인만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추후,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개인 내적·외적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여대생의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학년, 전공계열 및 이성교제 여부를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인들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학년, 전공계열, 이성교제 여부에 따른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매개과정을 검증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성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희경, 박경 (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15-33.
- 김동기 (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

- 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6(6), 135-159.
- 김동일 (1991). 성의사회학. 文音社.
-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7(0), 249-268.
-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도미향, 이용복 (2005).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5(2), 93-114.
-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 서경현 (2006).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과 건강 ;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심리적 개입.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단일호), 48-49.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91-106.
-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117-125.
- 오숙희, 강희순, 김윤희 (2010). 남·녀 대학생의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2), 249-257.
- 오세연, 곽영길 (2011).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3(5), 3-27.
- 이영숙 (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회지, 20(1), 48-56.
- 이은진 (2015).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427-441.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십대 여학생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십대 여학생보호위원회.
-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참여 효과 Effects of a Sexual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in High School Girls. 대한간호학회지, 33(5), 659-667.
- 장영철, 노성희, 박재용, 오남석, 윤희지 (2015). 3세, 5세 남녀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단일호), 469-469.
- 장윤경 (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단일호), 179-204.
-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2016).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127-151.
- 정주리, 이기학 (2007).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61-174.
- 좌현숙 (2011).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궤적의 성차와 예측요인-아동,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237-263.
- 최명현 (2004).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hotline.or.kr>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 Ackard, D. M. & Neumark-Sztainer, D. (2002). Date violence and date rape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health. *Child Abuse Neglect*, 26(5), 455-473.
- Arias, I., & Pape, K. T. (1999). Psychological abuse: Implications for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leave violent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14(1), 55-67.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lumstein, P., & Schwartz, P. (1983). *American couples: Money, work, sex*. New York.: Morrow.
- Bollen, K. A., & Stine, R. A. (1992). Bootstrapping goodness-of-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05-229.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 Choice, P. & Lamke, L. K. (1997). A Conceptual Approach to Understanding Abused Women's Stay/Leave Decis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18(3), 290-314.
- Gefen, D., Karahanna, E., & Straub, D. W. (2003). Trust and TAM in online shopping: an integrated model. *MIS quarterly*, 27(1), 51-90.
- Greendlinger, v., & Byrne, D. (1987).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e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t sexual aggress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3(1), 1-1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Kelly, L. (1987).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In J. Hanmer, & M. Maynard,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pp. 46-60).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 Kiefer, A. K. & Sanchez, D. T.(2007).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s*, 14(2), 269-290.
- Lewin, M. (1985). Unwanted intercourse: The difficulty of saying no.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2), 184-192.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 Burkholder, G. J.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Muehlenhard C. L. & McCoy, M. L. (1991) The Sexual Double Standard and Women's Communication about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3), 447 - 461.
- Nicolaidis, C. & Touhouliotis, V. (2006). Addr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primary care: Lessons from chronic illness management. *Violence and Victims*, 21(0), 101-115.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 Burkholder, G. J.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
- Perper, T, & Weis, D. L. (1987). Preceptive and rejective strategies of U.S. and Canadian college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3, 455-480.
- Pulerwitz, J., Gortmaker, S. L., & DeJong, W. (2000). Measuring sexual relationship power in HIV/STD research. *Sex Roles*, 42(7-8), 637-660.
- Reneau, S., & Muehlenhard, C. L. (2005). *Unwanted consensual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Eastern Region-Midcontinent Region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exuality, Atlanta.
- Rusbult, C. E., & Martz, J. M.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depen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558-57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1), 165-177.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Vanghn, R., Rupal, S., & Constance, W.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178-183.
- Wingood, G. M., & DiClemente, R. J. (200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gender and power to examine HIV-related exposures, risk factors, and effective interventions for women. *Health education & behavior*, 27(5), 539-565.

1차원고접수 : 2016. 07. 26.

심사통과접수 : 2016. 09. 12.

최종원고접수 : 2016. 09. 19.



##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Kang Suk Shon

Joong-ang sangha University

So Mi Jeong

Ajo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surveys were conducted by 548 female students attending five four-year-course colleg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using gender-role stereotype scale,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scale, and sexual assertiveness scal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e equation model test about model of this study, and goodness-of-fit test were performed and analysed. Also,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60 femal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order to derive qualitative information relating to sexual asser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about the reason why college female students don't stand up the sexual assertiveness effectively between couple relationships, and what kind of helping behaviors they need, 3 domains and 12 categories(4 internal reasons, 5 external reasons, 3 helping behaviors they need) were finally derived. Second,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gender-role stereotypes and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appeared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for intervention to change awareness about gender-role and sexual assertiveness through female college students' counseling and training.

*Key words* : female college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s,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sexual assertiveness